

## 95. 자동차 정비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중이염

**성별** 남 **나이** 67세 **직종** 자동차 정비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한OO은 2004년 1월말 강한 충격 소음에 노출된 후 이통과 이명, 그리고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P이비인후과에서 약 10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우측에 중이염도 진단 되었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한OO은 현장 공장장으로 차량 손상 부분을 확인하고 차량수리 견적을 내기 위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부위 탈부착 또는 수리 등을 하며 공장장의 직책으로 작업지시를 하였다. 근로자들 일부는 소음 보호구(귀마개)를 착용하고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당해 근로자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05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은 판금부의 판금작업에서 83.4-87.6 dBA(전회 측정 결과는 85.4-86.5 dBA)로 노출기준은 초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부서 근로자는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나 현재까지 소음 특수건강진단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상기 근로자는 OO자동차에 2003년 5월에 현장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작업하던 중, 2004년 1월말 군대차량이 입고되어 동료 근로자가 해머로 두드려 펴는 작업을 작업지시하다 강한 충격 소음에 노출된 후 이통과 이명, 그리고 난청 증상이 발생하고, 2004년 11월 부터 대화의 어려움과 작업지시와 관련한 의사소통 장애로 2005년 3월 10일 퇴사하게 되었다. 2004년 9월에 한양성심의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상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다. 이후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서울 소재 P이비인후과에서 약 10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우측에 중이염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4. 결론: 근로자 한OO은

- ①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 중이염(우측)으로 진단되었으며,
- ② 40여년간 자동차 정비 및 수리작업에 종사하므로써 청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또한 2004년 1월에 충격음에 노출된 이후의 난청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
- ③ 청각도상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중이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우측)을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는 볼 수 없으나, 동일한 좌측의 기도-골도청력과 우측의 골도청력을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할 수 없어,

근로자 한OO의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중이염(우측)은 작업환경 및 산업 의학적 평가를 통하여 상기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요인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